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

떼제 기도 모임 손발이

여름 캠프와 신앙학교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한창 신앙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그 방법을 하나 제안한다. 바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떼제 노래는 아이들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더러, 아이들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떼제 노래에 대해 잘 숙지한 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준비해 보자. (간단한 노래는 초등부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더 심도 있는 기도 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떼제 노래란?

‘떼제 노래’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짧은 가사를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 마치 기도와의 같아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준다. 처음 떼제 노래를 접하는 사람도 몇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떼제 노래와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기도와 묵상에 맛을 들이게 되며, 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를 체험하게 된다. 또 기도 모임에서 익힌 떼제 노래를 일상에서 흥얼거리며 자연스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

시켜 나갈 수 있다.

‘떼제’란 원래 프랑스 부르그뉴 지방 동부에 위치한 목가적인 작은 농촌 마을의 이름인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의 분열을 체험한 로제 슈츠(Roger Schultz)가 그 마을에서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인류의 화해를 지향하는 공동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떼제 공동체’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떼제 공동체’에서는 천주교·개신교·성공회 등 특정 그리스도교를 가르치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받아들이며,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세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르면서 함께 ‘떼제 노래’를 묵상하고, 교회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의 준비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를 이끄는 사람의 믿음과 열정이다.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지고 내맡기지 못한다면 기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기도로,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기란 어렵다. 떼제 노래와 그 기도에 깊이 있게 맞닿고 있으며, 그 안에서 체험한 은총을 공동체에 나누고픈 열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준비는 모임을 진행할 공간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를 공간의 중심에 놓은 뒤, 오렌지색·노란색 등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휘장이나 깃발, 천을 주변에 넓게 드리우면 기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 줄 수 있다. 천 뿐만 아니라 꽃, 컵초 등의 전반적인 공간 소품 또한 붉은색 계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조명은 너무 눈부시게 밝은 것보다는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연출하여 공간에 평온한 느낌을 더해 준다.

기도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콘(성화)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콘 자체가 기도와 은총으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콘을 응시하고 있으면 제작자의 영성에 동화되어 기도 참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도 참여하는 이콘 가운데 하나로 ‘렘브란트의 예수 그리스도’ 이콘을 추천한다. 이 이콘은 루카 복음 7장(36절~50절)의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에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자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부드러운 면에서도 연민에 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영성적으로 ‘왼쪽’은 죄에 빠진 과거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하느님과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이콘의 예수님은 왼쪽, 즉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차갑게 단죄하는 눈길도 아니라 깊은 애정과 용서의 시선을 보여 주고 계신다. 청소년들은 이 이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미리 준비된 이콘의 의미를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도 중에 청소년들이 이콘 앞에 머무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도 전에 마이크와 음향 시설도 체크해야 한다. 이때 솔로가 부르는 시편, 봉독하는 말씀과 강론의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면서도 그 음향에 참여자들의 노래 소리가 파묻히지 않게 적절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기도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 온도와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도 중에 켜 놓은 초가 계속해서 공기 중의 산소를 태우기 때문이다.

기도를 할 때, 동그랗게 앉는 것은 지양한다. 기도 안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서로가 아니라 그리스



도께로 모아져야 한다. 공간 중앙의 떼제 십자가와, 앞에 놓인-군데군데 놓아 둔-이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한다.

그 밖에 떼제 십자가와 떼제 악보집이나 빔프로젝터 등의 준비물이 있다. 떼제 노래는 어렵지 않으므로 떼제 노래를 이끌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굳이 악보를 나눠 주거나 빔프로젝터로 보여 주지 않아도 된다. 한두 번 정도 따라 부르면 외울 수 있기 때문이다.

(4) 알렐루야와 시편

시편의 각 절 사이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부르는데, 노래로 하지 않고 읽을 수도 있다.

(5) 복음

그날 복음이나 전례 시기에 맞는 말씀을 선택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읽는다. 그리고 말미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다.

(6) 강론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과 관련된 좋은 묵상 글을 준비해 읽어 준다.

(7) 떼제 노래

강론이 끝나면 한 곡의 노래를 여러 번(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부른다. 이때는 떼제 노래를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8) 침묵

청소년들은 늘 어떠한 소리, 노이즈(잡음)에 둘러 쌓여 있다. 귀엔 늘 이어폰이 꼽혀 있거나 휴대전화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침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침묵하는 시간에는 내가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임을 숙지시킨다. 5~10분 동안,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한다. 이 시간에는 두 눈을 감는 것보다 앞에 마련된 이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좋다.

(9) 보편 지향 기도

침묵이 끝나면 보편 지향 기도를 한다.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가난한 이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자유롭게 바칠 수 있게 이끈다.

(10) 십자가 경배

전송되어 오는 기도 자세 중 하나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마루에 대는 것이 있다.(루카 22, 41; 마태 26, 39 참조) 이 자세는 하느님께 우리의 존재를 오롯이 바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내어 맡기는 의미로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얹고 이마를 대는 전례를 한다.

이때 기도 봉사자들이 앞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 참여자들을 십자가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 십자가 경배를 어려워하거나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진행자들이 먼저 간단히 경배하고 내려 오는 것이 좋다. 경배가 진행되는 동안 떼제 노래를 모두 함께 공동 기도로 부른다.

(11) 나눔

기도 모임 안에서 체험한 느낌이나 그날의 기도 모임의 주제에 대해 나눈다.

(12) 마침 기도

나눔 후에는 모두가 십자가 주위에 동그랗게 모여 나눔 중에 좋았던 내용을 몇 사람을 통해 듣거나, 다 함께 간단한 떼제 노래를 부르며 정리한다.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의 진행 순서

기도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임을 상기하고 기도 시간을 지나치게 끌거나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몇 구절의 짧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몇 곡의 간단한 떼제 노래를 부르고, 어느 정도의 침묵과 묵상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1) 떼제 묵상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온전히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조용한 떼제 노래 CD를 틀어 주어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한다. 이때 조명은 끄고, 촛불을 밝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2) 오리엔테이션

진행자는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서로 긴장을 풀게 한 후, 떼제 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면서 쉬운 떼제 노래를 몇 곡 불러 보게 이끈다.

(3) 떼제 노래

그 달의 주제에 맞게 선정된 1~2곡을 깊이 있게 부른다.

떼제 기도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두 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모임 끝에도 노래와 침묵의 기도가 계속 되는 가운데, 나갈 사람은 나가고 더 앉아 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묵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도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기도나 전례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떼제 기도의 이러한 유연함과 자유로움, 단순함과 소박함은 아이들이 더 쉽게 기도에 맞들일 수 있게 하며, 주님께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준다.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 모임의 주의 사항

- (1) 기도 이꿈이와 기도를 준비하는 이들은 기도에 맞들여야 한다.
- (2) 기도의 전체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끌어야 한다.
- (3) 떼제 기도는 공동 기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 (4) 공동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 (5) 봉사자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임과 소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떼제 기도 모임을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에 아래 소개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 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도 모임을 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들(묵상문, 이콘 설명 등)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떼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 먼저 이 기도에 맞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동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수도원 성당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 45분에 시작하는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 모임’은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기도 모임이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기도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 체험하였다. 기도를 이끌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친구들과 이러한 기도 모임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체험하고 싶은 열망을 서로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기도 모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사이트

프랑스 떼제 www.taize.fr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 모임 www.taizelove.or.kr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 모임 손발이
1995년부터 13년째,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떼제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